

## 서플라이체인 강경화와 일본기업의 입지·투자전략

※이 자료는 株式会社東レ経営研究所「新型コロナはサプライチェーンの強靱化を促進-不確実性の高まりと日本企業の立地・投資戦略」(2021. 2. 10.)을 요약, 정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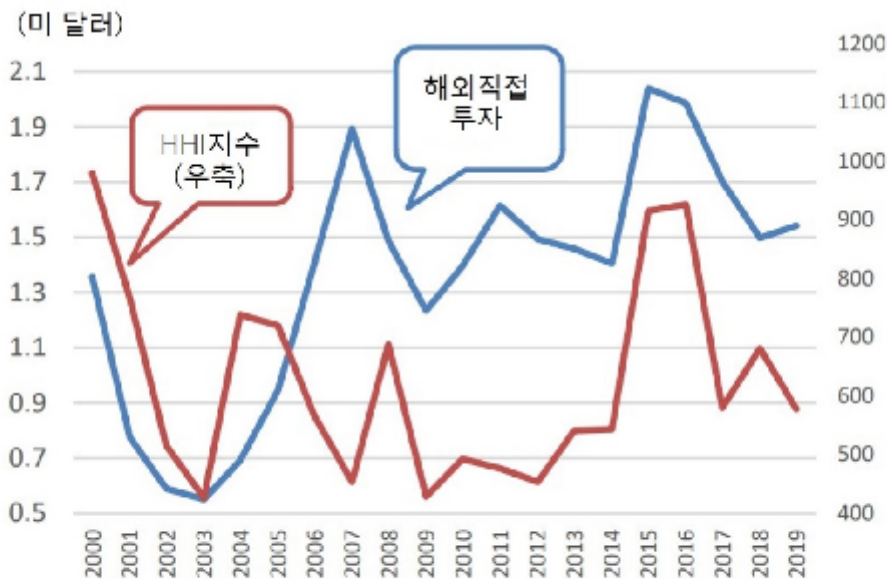
- 일본 기업은 글로벌 전략으로서 소비지에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 및 공급을 하는 입지전략을 시행해 왔으며, 일본기업의 해외 생산 비율을 상승시킴
- 최근 해외 생산 비율이 제자리걸음인 요인 중 하나는 미·중 대립이나 코로나 재난 등 세계적인 불확실성의 고조에 의한 리스크 허용도의 저하임
- 서플라이 체인의 다원화와 일본 기업의 국내회귀의 움직임은 일부에서만 보이고 있지만, 일본 기업의 지역생산 지역소비라는 입지 전략은 변하지 않았음
- 일본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플라이 체인 강인화에 따른 비용 인상을 감안할 수 있는 코스트 경쟁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

### □ 일본기업의 국제분업 진전

- 지금까지 일본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인 해외사업 전개를 추진한 결과, 일본기업의 해외생산이 확대되고 있음
  - 현재 일본기업은 일본 국내에서는 생산 및 수출에 관한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소비지에 가까운 지역(해외 현장)에서 생산 및 공급을 하는 입지전략을 책정, 시행하고 있음.
  - 이 전략은 국내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은 해외 경제성장률의 혜택을 누리면서 환율 변동 등 외적 환경 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데에 합리적임
-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사업 전개속도가 정체되는 요인 중 하나는 리스크 허용도의 저하임
  - 일본과 세계의 경제성장률 격차는 2010년대 전반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2.7%포인트 웃돌고 있던 데 반해, 2010년대 후반에는 0.6%포인트 축소된 2.1%포인트만큼 세계경제 성장률이 웃돌고 있음.
  - 이로부터 해외 생산 비율이 제자리인 것은 신흥국 등 해외 경제성장률의 증가 폭이 축소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세계적인 불확실성의 고조가 일본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막고 있음.
- 세계 각국의 신문보도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에 관한 기사를 정량화해 지수화한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에 따른 세계의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보면 2015년을 정점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그 편차도 2010년대 중반부터 저하됨.
-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위험이 커지면서 과감한 직접투자가 어려워지고 직접투자 규모도 편차도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탄생과 미·중 갈등 격화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를 조장하고 불확실성을 높여 글로벌 직접투자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을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음

<그림1> 세계의 해외직접투자과 편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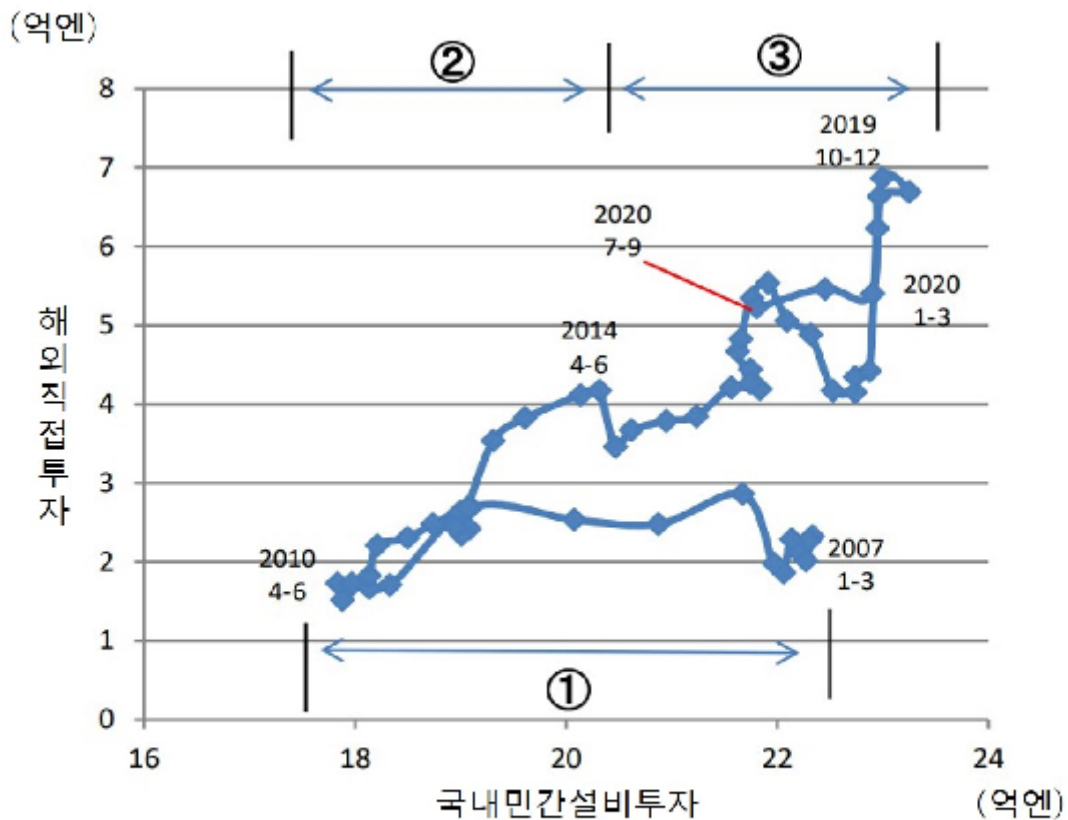


주 : HHI지수는 집중 및 분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임. 본 지수의 증가는 직접투자가 국소적으로 집중되거나 하는 것으로 직접투자의 지역적 분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나타냄  
출처 : UNCTAD 홈페이지

- 또한 코로나 사태 또한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있음.
- 국제협력은행의 해외직접투자 설문조사 결과, 향후 해외사업 전개에 대해 강화 및 확대한다는 기업의 비율이 20년간 60%를 밑돈 적이 없었으나 2020년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기업 전체의 59.3%로 나타났음
- 설비투자의 국내회귀는 일시적인 현상임.
- 리먼 사태 이후 일본의 국내설비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관계를 보면, 국내설비투자의 트렌드는 시기에 따라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됨

- ① 리먼 사태부터 2009년도까지의 국내설비투자의 축소 국면 : 리먼 사태로 수요가 증발하면서 설비투자도 축소할 수밖에 없었음
- ②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해외설비투자의 확대 국면 : 중국의 고성장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를 2배로 증가시킴. 국내설비투자도 늘었지만 리먼 사태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함
- ③ 2014년도 이후의 국내 및 해외설비투자의 확대 국면

<그림2> 국내 민간 설비투자(가로축)와 해외직접투자(세로축)의 산포도



주 : 두 데이터 모두 4분기 이동 평균치를 채용함  
출처 : 내각부 '국민경제계산', 재무성 '국제수지상황'

- 설비투자의 동향에 주목하면 2014년도부터 2015년도에 걸쳐,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전반에 걸쳐 해외설비투자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 반면 국내설비투자는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비투자가 국내회귀를 했다고 볼 수는 없음.
- 단, 설비투자의 국내회귀가 발생한 기간은 한정되어 있어 리먼 사태 이후의 10년간 설비투자의 트렌드는 해외투자의 증가였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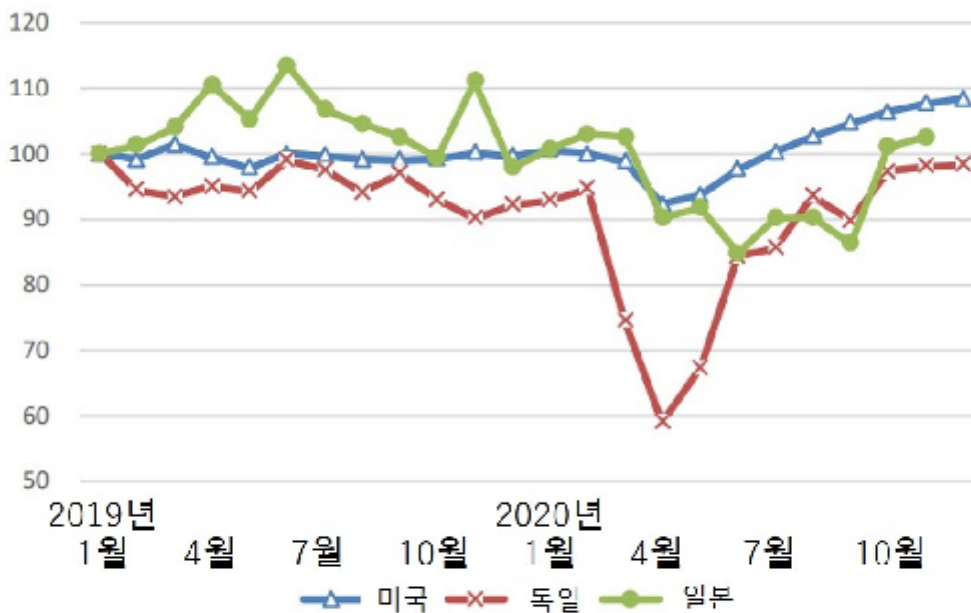
- 일본정부의 기업입지 관련 정책과 일본기업의 최신 동향
- 일본정부도 제조업의 국내회귀와 서플라이 체인의 다원화를 촉진함.
  -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전력고나 엔고 등에 의해 일본국내 산업의 공동화(空洞化)가 진행되는 것을 염려하여 고용 유지와 창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회귀의 추진책이 나옴.
  - 대체할 수 없는 부소재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축전지, 친환경 자동차 등의 성장 분야를 대상으로, 재해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보조금을 교부함.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이 정책은 설비투자 1.8조엔의 계기가 되었으며 관련 산업을 포함한 6.7조엔의 수요와 27만 명의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있음.
  - 부품 등의 조달이 중국 등 특정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중 대립이나 COVID-19의 감염 확대 등의 불확실성에 의해 국내 제품 및 부품의 생산이 정지되는 등 국경을 초월한 공급사슬의 취약함이 표면화되었음.
  - 이에 경제산업성은 2020년도 추경예산 중 국내회귀 촉진에 대해 공급사슬 대책을 위한 국내투자 촉진 사업비 보조금 예산을 3,060억엔으로 올렸을 뿐만 아니라, 공급사슬의 다원화에 대한 지원 사업 예산을 235억엔으로 올리고 있음
- 2020년에 들어 서플라이 체인의 재검토를 추진하는 일본 기업도 나타남
  - 생산 거점의 국내회귀에 대해서는 생활 용품을 다루는 아이리스 오야마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던 마스크에 대해 새롭게 국내에 생산 거점을 마련해 생산을 개시함.
  - 반도체 관련 제품을 다루는 로옴의 경우 반도체 생산칩에 관련 부재를 조립하는 후공정에 대해 자동화를 진행시켜 국내회귀 시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는 국내에서 후속 공정의 양산 라인을 가동시킬 방침을 밝힘
  - 서플라이 체인의 다원화에 대해서는 후루카와 전기공업과 고마츠 등이 COVID-19의 감염확대에 의한 세계 생산거점의 가동정지에 있어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비상시에 대체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함
  - 서플라이 체인의 다원화와 일본 기업의 국내회귀 움직임은 일부에서만 보이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정책적인 지원은 있지만, 기업의 움직임으로서는 업종이 한정된 것에 머무르고 있어, 일본 기업의 지역생산 지역소비라는 입지 전략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일본기업의 새로운 글로벌 입지전략
  - 불확실성의 상승으로 공급사슬의 재검토가 불가피함
    - COVID-19와 같은 전염병 등의 충격에 대해서도 공급사슬이 기능하기 위한 방안은 이하와 같음
      - I. 거점 내에서의 재고 증축이나 생산 라인의 복선화
      - II. 생산 등 사업 거점의 지역 분산
      - III. 국내회귀를 포함한 각 지역 내에서의 공급사슬 완결
        - I~III과 동시에 센서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생산거점의 가동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공급사슬의 고도 관리를 진행시킬 필요.
  - 마스크·소독제·인공호흡기 등 의료용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으나 이번 COVID-19의 감염 확대에 수반해 관련 제품의 수출 제한을 실시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관련 업종의 일본 기업은 만일의 경우를 위해 이러한 제품의 생산 입지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그 전략의 하나로 국내회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의료용품을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에 대해서는 상정하는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서 공급사슬 대책이 달라짐.
    - 주로 상정하는 리스크가 전염병이나 미·중 갈등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리스크를 전면적으로 피하는 것은 어렵고 만일의 경우에 세계 각처로부터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I~III을 준비하고 공급사슬의 강인화를 도모할 수 밖에 없음.
    - 상정하는 리스크가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 지역특유의 현상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II와 같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생산거점 분산이 촉진될 것임
  -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강한 비용경쟁이 필수
    - 향후 제조업에 있어 불확실성의 고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사슬의 강인화를 실시하는 것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짐. 이러한 근본적인 비용 삭감을 실시할 수 없으면 모든 회사가 충분한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일본의 제조업 기업은 장기간에 걸쳐 비용 경쟁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

○ 불확실성에 의해 신규투자를 미루는 움직임도 보임

- 일본의 경우 코로나화로 인해 2020년도에 실시되는 일본의 설비투자는 2019년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미국의 경우 2020년 봄에 침체를 보였지만, 그 후 순조롭게 회복을 계속하고 있어 2020년 12월 시점에서 코로나전의 수준을 넘었으며 독일의 경우 2020년 4월에 크게 침체했지만, 그 후 급회복해 2020년 말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함

<그림3> 대기업 제조업의 설비투자 계획 신장률(전년도 대비) 추이  
(2019년 1월 = 100)



주 : 미국은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자본재, 독일은 항공기, 자동차를 제외한 자본재, 일본은 전력, 선박을 제외한 민수기계

출처 : 미국 내구수주통계, 독일 제조업수주통계, 일본 기계수주통계

<원본자료>

福田佳之「新型コロナはサプライチェーンの強靱化を促進 - 不確実性の高まりと日本企業の立地・投資戦略」株式会社東レ経営研究所 (2021年2月10日)

<https://cs2.toray.co.jp/news/tbr/newsrrs01.nsf/0/AF87228C1CFEF07F4925867F0010DD59?open>